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은 “100세 발명가”

이명규 옹(翁)

이명규 옹(翁). 올해로 그의 춘추는 100세가 되었다. 짙은 눈썹과 그리 거칠지 않은 피부는 100년이라는 세월을 무색하게 했다. 지금도 전철을 타고 다니시고, 신석균 한국발명학회장과 만나 발명에 관한 담소를 나누시며, 기쁨씩 IDEA 개발 연구소를 찾아가 발명의 감각을 되새김질하신다는, “발명계의 백전노장” 이명규 옹(翁)을 만나보았다.



1909년생으로 올해 100세가 된 이명규 옹(翁)은 강원도 김화군 원남면에서 태어났다. 2세가 되던 해에 일제가 한일 병합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를 삼게 된다. 11세 때에는 을미독립만세 운동을 한문서당에서 당하고, 16세가 되던 해에 처음으로 곡선의 길이를 측정하는 「곡선측정기(발명 제1호)」를 발명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그는 평생 발명외길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된다.

특히, 실용신안, 의장 등으로 출원한 발명 아이디어만 무려 290여 개인 이명규 옹(翁)은 20세 때 강원공립사범학교에 입학, 전국학생미술전람회에 두 번이나 입선하였고, 23세가 되던 해 졸업과 동시에 강원공립보통학교 훈도가 된다.

31세가 되던 1939년, 모내기 기계 「이양기(移秧機)」를, 그 다음해 「이양기의 도묘정리장치」를 발명해 동아일보에 ‘농촌에 복음! 이양기(移秧機) 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힘들게 모내기하는 농부들이 안쓰러워 교직에 있으면서 틈틈이 발명을 했어요. 특허를 따낸 뒤 아예 교직을 그만두고 서울에 연구소를 차렸지요. 이양기 상용화 작업을 한창 하는 와중에 일본에서 이양기 200대가 들어왔어요. 그 탓에 제 발명품은 실용화되지 못해 무척 아쉬웠죠.”

6·25전쟁 직후에는 태극기가 널리 쓰이는 것에 착안해 태극기 자동인쇄기를 발명했고, 떡을 자르는 대로 꽃이나 나비 등 문양이 새겨지는 기계도 발명했다. 49세 때에는 「다색인쇄기(한국특허 제1호)(1957년)», 62세 때 「교체시간예고식교통신호등(1970년)», 76세 때 「경량단열성블록제조기(1984년)», 78세 때 「다목적가변이륜차(1986년)」를 발명하고, 79세인 1987년에 특허도면 제조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키 점프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나는 조끼(1998년)», 「멜로디발성홀컵(1999년)», 「월드컵기념탑상치물(2002년)», 「소방기능을 가진 오토바이(2004년)», 「하천정화성 낚시질 방법(2005년)」 등 발명아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으며, 그는 “1V나 신문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한다”고 말했다. 좋은 발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로 달려가 기존 특허자료 검색을 하는 등 열정이 대단하여 특허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이명규 옹(翁)은 “마지막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뿌려놓은 씨앗의 결실을 거두고, 뚜렷한 발명품 하나 세워놓고 가겠다”며 100세인 지금도 발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발명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발명으로 성공하려면 소재를 잘 선택해야 해요. 현재의 상황에 맞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죠. 너무 미래의 것이러든가 과거의 지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지정해준 분야를 연구하면 되니까 그나마 나은 편인데, 개인발명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예요. 그게 외롭고 힘이 듭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발명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경우, 잘 팔릴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요. 단순히 허황된 꿈을 꾸며 발명을 했다가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칠판지우개를 발명한다고 했을 시, ‘우리나라에 학교 수가 많고, 교실 수가 많으니 판매를 할 경우 수익이 어떨겠다’라는 식의 계산을 하는 경우, 현실과 맞지 않을 확률이 매우 커요. 발명가는 그런 계산을 하면 안돼요. 그런 계산법으로 발명품이 판매되는 거 아니거든요.

발명가가 그런 위험한 생각으로 자본을 투자했다가는 결국, 시간과 물질 등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재를 잘 선택해서 연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척 많은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안 되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되는 걸 알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소재를 잘 선택하시고 안 되는 것을 잘 파악해서 되는 발명품을 만드셔서 꼭 훌륭한 발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